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순천시 전국 최초 모바일 인사 상담 '순천톡' 개발

직원 50여 명 인사·조직 혁신 동아리 운영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로 인사고충 상담이 가능한 '순천톡'을 개발하고 인사소통 혁신 창구로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조직 혁신 동아리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언제 어디서나 인사상담이 가능한 순천톡을 개발해 실시간 직원들과 인사고충 상담이 가능하게 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인사고충이 있는 직원들은 인사부서를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던지 전화나 메일로 인사상담을 실시해 왔다.

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2,100여 명의 직원들 고충을 세심하게 살피기엔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핸드폰으로 인사상담이 가능한 앱을 개발했다.

직원들이 인사고충 사항을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인사팀장과 인사 담당자에게 알림문자가 가고, 이를 즉시 답변하면 인사상담자에게 바로 답변완료 알림문자가 가는 소통 시스템이다.

1:1 상담으로 익명성이 보장됨은 물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어 직원들의 효용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순천톡과 함께 직원들의 인사·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반영해 나가자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조직 혁신 동아리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동아리는 다양한 직급, 직렬, 나이로 구성된 50여 명의 직원들이

매월 만나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 시스템과 급변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화 방안 등을 톡 터 놓고 이야기 한다.

베이비붐 세대교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맞춤형 교육 제안은 물론 워라벨 시대에 맞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 인사·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직원들이 스스로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대안도 직접 만들어 간다.

서용석 총무과장은 "스마트 시대에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인사·조직 혁신 동아리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인사소통 창구이자, 행복할 일터를 직원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조직혁신 창구로 키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도-농상생의 터전' 나주 혁신도시 공원텃밭 개장

제 1텃밭에서 개장식...총 4개소 350구획 분양



나주시는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된 빛가람 공원텃밭 개장식을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제 1텃밭(빛가람동 536)에서 텃밭 참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시 속 녹지 확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혁신도시 내 4개소에 조성된 빛가람 공원텃밭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향유와 자녀들의 생태교육 장

소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한진, aT 등 이전공공기관 직원에게 텃밭 140구획을 일반 시민에게 210구획을 분양하는 등 총 350구획을 분양했다.

지역 청년 농부들로 구성된 나주 새H연합회(대표 김기도)가 주관한 이날 개장식에서는 텃밭 자리배정에 이어, 고추, 방풍 등 모종 4종과 소농기구, 호미 등을 지원하고, 작물

재배법, 유의사항 등 농업지식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장식에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도시농부들의 요청에 따라 텃밭에 남아있는 물을 끌라내는 작업과 더불어 밭 흙을 채취하여 토양성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유기질 퇴비와 석회, 토양 유용미생물을 투입 하는 등 원활한 텃밭 농사를 위한 양질의 토양 관리에 힘써왔다.

시는 공원텃밭 외에도 도시농부교실, 직장인 원예교실, 실버세대 텃밭 정원, 학교 텃밭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도시농업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텃밭 운영, 도시농업 관련 프로그램 문의는 시청 배기솔지원과 소속 작물팀(339-7473)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텃밭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작물을 재배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공원텃밭은 12월 10일 까지 운영된다.

순천시 주암 공각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공모 선정

유기농 6차 산업기반 조성으로 농촌의 새로운 활력 기대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8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주암면 공각마을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은 친환경을 적극 실천하는 유기농 선도지역을 발굴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유기농업 확산과 유기농업 체험장, 농촌관광 등 도·농 교류 촉진으로 주민소득 증

대를 목표로 한다.

공모에 선정된 주암면 공각리는 오색미, 토종종자 적토미와 같은 특수벼 등 친환경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으로 친환경 확대와 마을 활력화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무항생제 퇴비 발효장, 유기농자재

제조 교육장,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체험시설 등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축산과 유희성 과장은 "도시소비자 수확체험 팜파티, 트랙터 꽃길 드라이브, 유기농 작거래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6차 산업 성공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

광양시, 오존경보제 운영 오존피해 최소화

광양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오존경보제를 운영해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존경보제 운영은 광양 만권이 지리적으로 여수산단과 광양국가산단의 석유화학 공장, 제철소 등의 대형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분지형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타 도시에 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여름철 기온과 일사량이 영향을 많이 받는 하절기에 주로 오존 발생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시에서는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회 전제한지역 점검, 대기배출시설 종점 지도, 주요도로면 고압살수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광양시, 산지유통 역량강화 합동워크숍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광양시는 산지유통 역량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최근 1박 1일 일정으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집에서 시·농협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합동워크숍에는 시와 농협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시와 농협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또 농가 조직화 전략에 대한 외부 특강과 연합사업 및 생산자조직 육성성에 관한 각 연합사업조직별 맞춤형 전략수립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를

병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와 농협, 광양시연합사업 담당자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고 협력을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중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행정-농협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통합마케팅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소비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와 농협, 출하조직 간의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산지유통활성화와 농가조직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증대를 위해 2018년부터 통합마케팅조직인 광양시연합사업단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체계를 구축을 위한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화순군,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

(사)화순군귀농귀촌협 운영...만연산 생태숲공원 내 무인 판매



화순 만연산 생태숲공원 내에 귀농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 14일 개장돼 귀농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무인판매한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귀농인 농

특산물판매장은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유보영)에서 운영한다.

100여명의 귀농인이 직접 생산한 채소, 잡곡, 견과사리, 꿀, 여주 등 385일 무인 판매로 운영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만연산 생태숲공원은 지역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귀농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 판매로 귀농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은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장 개장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 유지와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작거래장터 운영, 귀농인 연차륙 적용지원,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등 다양한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종근 군수는 "연중 365일 무인 판매가 가능한 귀농인 농산물 판매장을 개장, 귀농인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순=박순철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밟기 강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영광우시티

장성군